



**강원건설단체연합회 정기회의**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2일 도건설협회 회장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 지난해 결산과 올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이달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 건축법 개정법을 본격 시행

### 기존 건축물 내진설비 보강멘

###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초고층건물 안전영향평가 시행

이달부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목구조 건물은 종전대로 3층 이상 기준이 유지된다.

또 연면적 500㎡ 미만 1·2층 규모의 소형 건물에 대해선 내진설계 간소화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법률이 오는 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을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으로 편입됐다.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연면적 10만㎡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이었던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015년 들어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물로 확대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연면적 500㎡ 이상이거나 2층 이상으로 넓어졌다.

다만 목구조 건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다른 구조와 달리 3층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전같이 3층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정형화된 소형 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내진설계 간소화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연면적 500㎡ 미만 1·2층 규모의 소형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를 위한 구조 개선 없이도 콘크리트 기둥 두께, 철근 등 사양규

정을 따르면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기존 건축물에 내진 설비를 보강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 높여주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초고층,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 인접 지역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하도록 했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려면 해당 건물의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안전영향평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평가기관은 건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정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하게 된다.

아울러 건축 현장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일정기간 업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급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 등 관련 업무가 최대 1년간 정지된다.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시설이거나 16층 이상 건물을 말한다.

이 외에도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공사가 일정한 진도를 넘길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에 따라 동물화장 시설과 동물 전용 장례식장을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새로 추가했다.

박경남기자 knp@

강원 건단련, 1차 정기회의  
올해 시중노임단가 등 보고



강원건설단체연합회 (회장 오인철·사진)가 2일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상반기에 적용되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와 올해 달라지는 건설제도에 대해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 등을 승인했다.

태성종합건설, 태백산서 수주목표 달성·현장 무재해 기원제



태성종합건설(대표 오인철·대림·직원과 함께 2017년 수주목표 초과달성, 현장 무재해를 기원한 1일 강원도 태백산 천제단에서 는 수주기원제를 올렸다.

# 건설업 체감경기 '최강한파' 몰아쳤다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에도 최강 한파가 몰아쳤다. 주택시장이 잔뜩 위축되면서 체감지수가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지난해 12월보다 15.9포인트 하락한 74.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15년 1월(15.9포인트) 이후 2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일반적으로 1월에 공사 발주물량이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건설경기 회복세를 주도해왔던 주택부문의 체감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1월 주택공사수주 지수(75.4)는

1월 CBSI 74.7 그쳐  
한달만에 15.9p 하락  
24개월만에 최대 낙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발주가 급감하면서 전월보다 무려 19.7포인트 하락했다.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CBSI는 지난해 8~11월까지 70선 중후반에서 회복세를 보이다가 12월에 대폭 올라 5개월 만에 90선을 회복했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

다는 의미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

건설업 체감지수 급락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지수(60.0)가 19.6포인트 하락해 낙폭이 가장 컸다. 대기업 지수(84.6)와 중견기업 지수(77.4)도 13~15포인트 떨어졌다. 서울(-16.9포인트)과 지방(-15.1포인트) 기업의 체감경기도 동반 하락했다.

건설공사 기성 지수는 6.6포인트 하락한 90.2를 기록했다. 대형·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12.2포인트)의 낙폭이 컸다. 1월 수주잔고 지수(70.7) 역시 13.0포인트 떨어졌다. 공사대금수급 지수(97.2)는 4.2포인트 떨어진 반면 자금조달지수

(90.3)는 11.6포인트 올라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월 CBSI 전망은 1월보다 9.2포인트 높은 79.2를 기록했다. 신규 공사수주 전망 지수도 소폭(2.1포인트) 오른 84.0이었다. 다만 기성지수 전망치(84.1)와 수주잔고 지수 전망치(67.4)는 각각 6.1포인트, 3.3포인트 하락했다. 공사대금수급지수 전망치(88.5)와 자금조달지수 전망치(85.4) 모두 4~8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경영금융연구실장은 "2월 CBSI 전망치가 70선 후반으로 여전히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 강원도 광역교통망 구축 활발... 수도권 접근성 크게 개선

강원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연내 잇따라 개통하면서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속초 고속철 등 광역 교통망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복선전철이 준공된다.

우선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공사는 오는 6월 끝난다.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양을 연결하는 동서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다.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와 춘천~동홍천 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로 구성된다. 서울~춘천과 춘천~동홍천은 개통됐고, 마지

올 6월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12월 원주~강릉 복선철도 개통

'예타 통과' 춘천~속초 고속철도

여주~원주 철도사업도 추진 '박차'

개발호재 타고 기업 유입 등 늘어

부동산 경기도 활황세 지속될 듯

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고속도로의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총 71.7km 길이의 동홍천~양양 고속도

로는 총 사업비가 2조4000억원 가량으로 당초 올해 12월 개통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정도 준공 일정이 당겨졌다.

원주~강릉 복선철도(120.7km)도 오는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오는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시운행 등을 거쳐 12월에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원주~강릉 복선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1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속초 고속철과 여주~원주 철도 등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추가 광역교통망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춘천~속초 고속철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춘천~속초 고속철도는 인천공항과 서울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서울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과 연계된 철도로 2024년 완공되면 인천공항과 속초의 이동 시간이 2시간 이내로 진입하게 된다.

여주~원주 철도는 지난해 개통된 판교~여주 복선전철과 올해 개통되는 원주~강릉 복선전철을 연결하는 철도다. 총 20.9km 길이로 사업비는 5000억원 가량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며, 설계 작업을 앞두고 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까지 연결되면 인천에서 강릉까지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고속도로)가 개통된 데 이어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내 광역 교통망이 연이어 완공되거나 추진을 앞두고 지역경제에 미

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역 교통망이 속속 추가되면서 관광객이나 기업들의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도내 부동산 경기도 당분간 호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단지 개발도 예상된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경제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려면 예상된 사업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의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춘천~속초 고속철도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여주~원주 철도사업의 설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